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언론매체에 의정활동 사항을 적기에 제공하는 등 시민이 쉽고 빠르게 의회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의회소식지 1만2천 부, 안내책자 2천 부, 의정자료집 등을 발간했고 모의의회를 6회 개최해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알권리 충족에도 노력했다.

정책 의정 지역현안 해결 및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정책 토론회를 33회 개최했다. 정책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입법·법률고문 운영, 입법·정책 동향 발간, 실용적인 정책대안능력 제고를 위한 연구용역 실시 등 의원들의 입법·정책입안 활동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했다.

대전광역시

道花 : 백목련 市鳥 : 까치
 市木 : 소나무 캐릭터 : 한꿈이

시청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시장 : 이재관(李在官)

2012년 세종시가 공식 출범했고, 충남도청이 중구 대흥동에서 내포신도시로 이전했다.

면적·인구 동쪽은 충청북도 보은군·옥천군, 서쪽은 충청남도 공주시·논산시, 남쪽은 충청남도 금산군, 북쪽은 세종특별자치시·충청북도 청주시와 각각 접해 있다. 2017년 말 기준 총면적은 539.5km²로 유성구가 176km²로 가장 크고, 동구 136.6km², 서구 95.5km², 대덕구 68.7km², 중구 62.1km² 순이다. 총 인구는 61만4천639세대 151만9천603명(외국인 1만7천376명 포함)으로 집계됐다.

❁ 대전광역시 면적·행정구역

(2017년 12월 31일 현재)

구분	면적(km ²)	법정동	행정동	통	반
합 계	539.46	177	79	2,538	14,308
동 구	136.67	45	16	378	2,043
중 구	62.14	26	17	410	2,357
서 구	95.5	27	23	803	4,761
유성구	176.46	53	11	590	3,273
대덕구	68.69	26	12	357	1,874

개 관

연혁 대전 지역은 삼한시대 마한의 변방에 속했다. 백제시대에 우술군, 통일신라시대에는 비풍군으로 불렸으며 고려시대에 들어와 회덕현, 진잠현으로 칭했다. 조선시대에 회덕군, 진잠군이 됐다.

1905년 경부선 철도가 개통되면서 대전역이 생겼고 일본인 거류민이 이 지역에 거주하기 시작했다. 1914년 3월 회덕군·진잠군과 공주군 일부가 합쳐져 대전군 대전면이 된 후 1931년 4월 대전읍으로 승격됐다. 1932년 10월 충남도청이 공주에서 대전으로 이전됐고 1935년 10월 대전부로 승격됐다

1949년 8월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대전시로 개칭됐다. 1963년 1월 대덕군 회덕면 일부와 유천면 전역을 편입해 시세를 확장했다. 1971년 7월 1일 출장소제를 도입해 동·서·중·북부 등 4개 출장소를 뒀고 1977년 9월 1일 구제를 도입해 동구와 중구를 뒀다.

1983년 2월 15일 행정구역 확대로 유성 등 광대한 지역이 편입돼 유성출장소를 뒀다. 1988년 1월 1일 서구를 신설해 3개 구가 됐다. 1989년 1월 1일 대덕군 지역 편입으로 직할시로 승격되면서 유성구와 대덕구를 신설해 5개 구로 재편됐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1995년 1월 1일 광역시로 개칭됐다. 1999년 9월 정부대전청사가 개청돼 제2의 행정수도시대를 맞이했다.

2000년 1월 1일 시청사를 중구 대흥동에서 서구 둔산동으로 이전해 둔산시대의 막을 열었다. 2005년 대덕연구개발특구 출범과 함께 구축한 세계 초일류 혁신클러스터와 행정중심복합도시 합천 결정 등으로 21세기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 중심지로 발전하는 기틀이 마련됐다.

재 정

2018년도 시 본청 예산은 일반회계 3조4천514억원과 특별회계 8천653억원을 합해 총 4조3천167억원이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1조3천980억원, 세외수입 1천538억원 등 자체수입이 1조5천518억원이며, 지방교부세 7천241억원, 국고보조금 8천823억원 등 의존수입이 1조6천64억원, 지방채 80억원으로 재정자립도는 42.7%다.

일반회계 세출은 일반공공행정분야 4천911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1천686억원, 교육분야 2천951억원, 문화 및 관광 2천369억원, 환경보호 646억원, 사회복지 1조1천309억원, 보건 615억원, 농림해양수산 400억원, 산업·중소기업 752억원, 수송 및 교통 2천985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2천812억원, 과학기술 564억원, 예비비 및 기타 2천514억원 등이다.

특별회계 8천653억원을 회계별로 보면 상수도사업 1천392억원, 하수도사업 1천537억원, 산업단지 220억원, 의료급여기금 2천124억원, 경부고속철도변 정비 91억원, 교통사업 307억원, 광역교통시설 80억원, 도시철도사업 23억원, 기반시설 9억원, 도시개발 618억원, 학교용지부담금 182억원, 도안지구 2단 계기반시설 500억원, 소방안전 1천564억원 등이다.

중점 추진사업

지역 현안 해결 위한 심 없는 노력 '4차 산업혁명 특별시 육성' 등 9개 현안사업을 대통령 지역공약에 반영시켰고, 2018년도 국비로 옛 충남도청사 부지매입비가 포함된 역대 최대인 2조8천200원을 확보했다.

❁ 2018년도 대전광역시 세입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항 목	예 산 액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 계	4,316,658	3,451,379	865,279
지방세	1,398,010	1,398,010	-
보통세	1,228,800	1,228,800	-
취득세	378,600	378,600	-
주민세	10,400	10,400	-
자동차세	198,500	198,500	-
레저세	17,900	17,900	-
담배소비세	102,000	102,000	-
지방소비세	216,200	216,200	-
지방소득세	305,200	305,200	-
목적세	169,210	169,210	-
지역자원시설세	32,230	32,230	-
지방교육세	136,980	136,980	-
지난연도 수입	-	-	-
세외수입	423,024	153,835	269,189
경상적 세외수입	336,326	97,064	239,262
임시적 세외수입	86,698	56,771	29,927
지방 교부세	750,522	724,079	26,443
보조금	1,082,086	882,314	199,772
국고보조금 등	1,082,086	882,314	199,772
지방채	8,000	8,000	-
국내 차입금	8,000	8,000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655,016	285,141	369,875

*특별회계 : 8천653억원(기타특별회계 5천724억원, 공기업특별회계 2천929억원)

❁ 2018년도 대전광역시 세출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항 목	예 산 액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 계	4,316,658	3,451,379	865,279
일반 공공행정	491,096	491,096	-
공공질서 및 안전	207,628	168,631	38,997
교육	295,076	295,076	-
문화 및 관광	236,939	236,939	-
환경보호	310,709	64,634	246,075
사회복지	1,343,243	1,130,884	212,359
보건	61,530	61,530	-
농림해양수산	39,951	39,951	-
산업·중소기업	76,776	75,172	1,604
수송 및 교통	353,137	298,530	54,607
국토 및 지역개발	442,278	281,222	161,056
과학기술	56,367	56,367	-
예비비	55,982	55,982	-
기타	345,946	195,365	150,581

*특별회계 : 8천653억원(기타특별회계 5천724억원, 공기업특별회계 2천929억원)

경부고속도로 회덕IC 신설 사업이 국책사업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고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와 지역 융·복합 스포츠산업 거점지역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사업도 안산지구가 투자선도지구로 선정된 데 이어 신동·둔곡지구 분양, 기초과학연구원 1차 준공 등으로 이어지면서 속도를 내고 있다. 스튜디오큐브 개관과 사이언스콤플렉스 기공식, 국제전시컨벤션센터 설계 공모 등 엑스포재창조 사업도 본격화해 지역의 핵심 현안 대부분이 정상궤도에 오른 한 해였다.

5대 역점 추진 과제 가시적 성과 대전형 청년정책을 만들기 위해 청년정책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대청넷 구축, 청년취업희망카드 사업, 청년활동공간인 청인지역 선정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

2017년 3분기 청년실업률이 5.4%로 전국 최저 수준을 기록했고, 청년고용률도 41.9%로 특·광역시 평균을 웃도는 성과를 냈다.

안정된 일자리 창출과 동반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목표 아래 5대 분야 243개 사업에 4천716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5만2천228개를 창출했다.

2018년도 생활임금을 2017년 대비 18.4% 인상해 광역시 최고 수준인 9천36원으로 끌어올렸고, 민간위탁 저임금 근로자까지 확대 적용키로 했다. 기간제 근로자 61명을 2018년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역사와 문화가 있는 도시재생 목표의 상징인 옛 충남도청사 부지 개발 사업이 기본계획 수립, 개발 추진 확정, 부지매입비 국비확보로 이어졌다. 이 밖에 근대화예술특구 지정과 중앙로프로젝트 국토부 심사 통과, 도시재생뉴딜 공모사업 선정 등으로 도시재생에 가속도가 붙었다.

트램사업이 도로교통법 개정, 기본계획 승인을 위한 행정절차 추진, 설계비 30억원 국비 확보로 탄력을 받았다. 시내버스 면허 증차와 고급화를 통해 교통 환경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동서를 연결하는 홍도과선교 지하화 공사도 추진했다.

원자력 안전을 위해 시민검증단을 구성·운영했고 원자력 안전조례 제정, 원자력 안전 협약 체결 등을 추진했다. 지진대책의 일환으로 공공시설물의 내진 성능확보와 지진대피소 정비, 예보·경보시설을 확충했다.

약속사업 정상추진, 대외적 성과 인정 시민과의 약속사업은 모두 95건으로 이 중 67건을 완료했고 27건은 정상 추진하고 있다. 2017년 전국 시·도지사 매니페스토 공약 이행 평가 '공약완료도' 부문에서 최우수 등급인 SA를 받았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대통령상, 전국장애인복지수준 1위, 전국 지자체 일자리 대상 등 대외기관 평가에서 44건을 수상해 재정 인센티브 14억4천만원을 받았다.

산 업

공 업 2016년 말 기준 제조업체 수는 총 7천738개다. 음료·식품 및 담배 1천329개, 섬유 및 가죽산업 835개, 나무제품 94개, 종이·인쇄 694개, 코크스 및 석유화학 207개, 의약품· 고무·비금속광물 559개, 제1차 금속 87개, 기타제품제조 4천87

개로 총 6만574명이 고용돼 있다.

2016년 12월 말 기준 수출총액은 41억6천331만 달러이고 수입은 34억7천691만 달러다.

농업 2016년 말 기준 농가 인구는 9천398가구에 2만4천525명이다. 한 해 동안 논 1천544ha, 밭 2천528ha 등 4천72ha를 경작해 정곡을 기준으로 미곡 6천109t, 잡곡 163t, 두류 173t, 서류 627t을 생산했다. 채소류는 4천369t, 특용작물은 334t, 과실류는 8천592t을 생산했다.

상업 대형마트 14개소, 백화점 47개소, 전통시장 29개소, 기업형 슈퍼마켓 51개소가 있다.

금융 2016년 12월 기준 한국은행 1개, 시중은행 137개, 지방은행 9개, 특수은행 45개, 신탁회사 227개, 자산운용회사 234개, 상호저축은행 7개, 신용협동조합 44개, 상호금융 16개, 새마을금고 42개, 수출입은행 1개가 있다.

사 회

주택 2015년 말 기준 단독주택 20만7천 호, 아파트 33만8천 호, 연립 및 다세대주택 4만4천 호 등 총 59만5천 호며 주택보급률은 102.2%다.

상·하수도 2016년 말 기준 상수도 하루 평균 생산량은 55만6천㎥, 급수율은 99.9%로 급수인구 153만 명에 대해 한 사람당 하루 평균 363ℓ 씩의 수도물을 공급하고 있다. 하수처리 인구(2016년 기준)는 총인구 153만1천495명 중 149만4천762명, 처리구역 외 인구 3만6천643명으로 97.6%의 하수처리시설 보급률을 보이고 있다.

교통 2017년 말 기준 등록차량은 65만9천619대로 승용차 54만7천882대, 승합차 2만2천716대, 화물차 8만6천777대, 특수차 2천244대며, 이륜자동차는 3만7천62대다. 주차장은 4만2천936개소에 72만7천727면이다. 2017년 말 기준 도시 계획상 도로연장은 총 2천361km로 고속도로 76km, 국도 84km, 시도 2천201km며, 포장률은 100%다.

사회복지 기초연금 2천509억원과 장애연금 228억원을 지원했다.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노인 일자리 1만4천227명, 장애인 일자리 1천480명, 여성 일자리 3천382명) 제공으로 취약계층의 자립을 지원했다. 효문화 가치 확산을 위해 대전효문화진흥원을 전국 최초로 개원(3월)했다. 장애인과 아동 인권 보호를 위해 대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개설(8월)하고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추가 개소했다.

환경 2016년 말 기준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1일 1천406t이며, 매립 17.4%, 소각 17.4%, 재활용 65.2%로 처리됐다.

2017년도 말 기준 대기오염도는 아황산가스 0.003ppm/년, 이산화질소 0.018ppm/년, 미세먼지(PM10) 45(㎍/㎥)/년, 초미세먼지(PM2.5) 21(㎍/㎥)/년이고, 수질오염도는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1.5mg/ℓ, 수소이온농도 8.1pH, 부유물질량 6.0mg/ℓ, 용존산소량 11.2mg/ℓ이다.

보건·후생 2017년 말 기준 의료기관은 총 2천204개소로 종합병원 10개소 5천561병상, 병원 40개소 4천070병상, 의원 1천577개소 3천249병상, 정신병원 5개소 1천178병상, 요양병원 52개소 9천136병상, 치과병원 6개소 47병상, 치과의원 509개

소 3병상, 한방병원 7개소 499병상, 한의원 508개소 78병상, 부속의원 9개소 29병상, 조산원 1개소,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20개소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일반수급자 3만2천544가구 4만9천335명, 시설수급자 158개소 3천22명이다.

교육·문화

교육 2017년 말 기준 학교 수는 총 322개교로 초등학교 148개교, 중학교 88개교, 고등학교 62개교, 특수학교 5개교, 대학(교) 19개교이며, 학생 수는 28만6천166명이다.

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는 보물 11개[대전 회덕동 춘당, 예념 미타도량참법, 채제공초상 금관조복본 및 흑단령포본, 이시방 초상, 성수침 필적, 통영축우대, 송준길행초서증본병화, 대전 비래사목조비로자나불, 목은이색초상, 묘법연화경삼매참법(권상)]와 사적지 1개(계족산성), 천연기념물 1개(괴곡동느티나무), 민속문화재 2개, 등록문화재 20개 등 35개이고, 지방지정문화재는 유형문화재 55개, 무형문화재 24개, 기념물 47개, 민속문화재 2개, 문화재자료 58개 등 186개가 있다.

문화시설 한밭도서관을 비롯해 총 24개의 공공도서관과 224개소의 작은 도서관이 있다.

11개 영화상영관이 있으며 대전예술의전당, 시립미술관, 이응노미술관, 평송청소년문화센터, 대전시립연정국악원, 대전평생학습관, 한남대학교 성지관 등 62개의 공연장과 62개의 전시시설이 있다.

체육시설 2017년 말 기준 공공체육시설은 육상경기장 3개, 축구장 13개, 야구장 2개, 수영장 18개, 사이클경기장 1개, 양궁장 1개, 국궁장 5개, 승마장 1개, 빙상장 1개 및 체육관 19개 등이 있다.

등록체육시설로 골프장 3개소가 있고, 신고체육시설로는 종합체육시설 4개, 수영장 20개, 체육도장 469개, 당구장 600개, 골프연습장 267개, 체력단련장 285개, 썰매장 1개, 빙상장 1개, 무도학원 46개, 무도장 1개 등 총 1천694개소가 있다. 이외에 시민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393개소의 지역밀착형 마을체육시설이 있다.

문화행사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 대전국제와인페어, 견우 직녀축제, 전국합창경연대회와 차치구에서 추진하는 대전 효 문화뿌리축제, 유성온천문화축제, 금강로하스축제, 동춘당문화제, 우암문화제, 정월 대보름행사, 계족산 맨발축제 등이 있다

관광 종합 테마공원인 오-월드, 효 테마공원인 뿌리공원, 유성온천, 으능정이 문화의 거리(스카이로드), 한밭수목원, 장태산 자연휴양림, 대청호 오백리길, 계족산 황톳길, 대전 둘레산길 등의 관광지가 있다.

대전의 관광명소를 저렴한 가격으로 편하게 둘러볼 수 있는 지역순환관광 프로그램인 대전시티투어를 운영하고 있다. 주요 숙박시설인 관광호텔은 20개소로 1천667개의 객실을 보유하고 있다

해외 자매결연도시 중국 난징·선양, 미국 시애틀·몽고메리카운티, 헝가리 부다페스트, 일본 오다·삿포로, 캐나다 캘

거리, 멕시코 과달라하라, 스웨덴 옘살라,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시, 호주 브리즈번시, 베트남 빈중성,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 등 11개국 14개 도시와 자매결연하고 있다.

의회활동

원 구성

〈의 장〉 김경훈

〈부의장〉 조원희, 김경시

〈정당별 의원 현황〉 더불어민주당 15명, 자유한국당 4명, 바른정당 1명, 무소속 2명이다.

의안 처리 정례회 2회(제1차 21일, 제2차 40일), 임시회 4회(59일) 등 총 6회 120일간의 회기 운영을 통해 조례안 242건, 예산 및 결산 14건, 동의안 32건, 결의안 10건, 규칙안 4건, 건의안 39건, 의견청취 8건, 기타(보고) 100건 등 모두 44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행정사무감사 상임위원회별로 총 49개 부서·기관을 감사해 시정요구 91건, 촉구 165건, 건의 177건, 검토 93건 등 총 526건을 처리하도록 하는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예산 심의 본예산 1회, 추경 3회 등 총 4차례 심의했으며, 2018년도 대전광역시 본예산 4조3천128억원, 교육비특별회계 1조9천32억원을 확정하는 등 총 6조2천160억원을 심의·의결했다.

상임위원회 운영위원회(9명), 행정자치위원회(5명), 복지환경위원회(5명), 산업건설위원회(6명), 교육위원회(5명)가 있다.

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8명), 대전의료원설립추진특별위원회(8명), 윤리특별위원회(8명), 국립철도박물관유치특별위원회(8명), 청년발전특별위원회(7인),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8인), 4차산업혁명특별지원특별위원회(7인), 인구증가방안마련특별위원회(6인)가 있다.

시민과 동행하는 열린 의정 구현 행정사무감사 관련 시민제보를 접수해 이 중 27건을 처리했고, 진정 및 인터넷 민원을 통해 접수된 시민 불편과 고충 114건을 해결하는 등 시민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용했다.

의정활동을 담은 인터넷 방송, 본회의장 개방(1천803명 방청) 및 의정홍보관 운영(5천170명 견학)을 통해 시민에게 다양한 의정 참여 기회를 제공했다.

생활의정 실천 원도심활성화 연구회와 안전도시 연구회가 있다. 상임위 소관업무 중 시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정책을 주제로 68회의 정책토론회 및 간담회를 열었다. 각종 사업장과 다양한 생활현장을 방문해 생생한 여론을 수렴하는 '생활 의정'을 실천했다.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 개발 대전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대전광역시 문자해독교육 지원조례, 대전광역시 노인교육 지원조례, 대전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등 177건의 안건을 의원발의했다.

시민·소외계층 배려 성락사회복지관 등 14개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거동 불편자 돌보기, 위문품 전달 등의 봉사활동을 했다.



울산광역시

市花 : 장미 市鳥 : 백로

市木 : 대나무 캐릭터 : 해울이

시청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시장 : 김기현(金起炫)



개관

연혁 울산은 삼한시대 진한(辰韓)에 속했다. 굴아화촌(屈阿火村)이라는 읍락이 현 중구 다운동을 중심으로 형성됐다. 후에 신라 파사왕이 이곳을 취해 굴아화현(屈阿火縣)을 두고, 남쪽에는 생서랑군(生西良郡), 동쪽에는 동진현(東津縣), 언양지방에는 거지화현(居知火縣)을 두었다.

신라시대를 거치며 울산지방에는 하곡현과 동진현이, 남쪽에는 동안군(東安郡)이, 서남쪽에는 우풍현(虞風縣)이 자리잡았다. 고려 태조 때 하곡·동진·우풍 3현을 합해 흥례부(흥려부)로 승격됐고 성종 14년(995년) 지방행정구역 개편으로 전국을 449현으로 분할할 때 공화현으로 개칭하고 별호를 학성이라 했다.

조선 태종 13년(1413년)에 울주가 울산으로 개칭되면서 최초로 '울산'이라는 명칭이 사용됐다. 선조 31년(1598년) 울산도호부로 승격됐고 고종 32년(1895년) 울산군으로 개칭됐다.

1914년 언양군이 울산군에 병합됐고, 태화강 이남의 삼산·달동·신정·옥동지역이 울산면으로, 하부면과 내상면이 하상면으로, 현남면과 현북면이 대현면으로 개칭됐다. 1931년 울산면이 울산읍으로, 1934년에는 동면이 방어진읍으로 승격됐다.

1962년 2월 1일 울산군 울산읍, 방어진읍, 대현면, 하상면 전 지역과 청량면 두왕리, 범서면 무거리·다운리, 농소면 송정리·화봉리가 울산특정공업지구로 지정·공포됐다. 같은 해 6월 1일 울산시로 승격되면서 울산군이 울주군으로 개편됐다. 1973년 3월 12일 울주군 서생면이 동래군에, 울주군 두서면 소호리가 상북면에, 삼남면 구수리가 언양면에 편입됐다.

1985년 7월 15일 구청제 실시에 따라 중구·남구가 설치돼 2구, 1출장소, 40개 동이 됐다. 1988년 1월 1일 방어진출장소가 동구청으로 승격(3구, 40개 동)됐고, 1991년 1월 1일 울주군이 울산군으로 변경됐다. 1995년 1월 1일 울산시·군이 통합돼(4구, 14 사업소, 60읍·면·동) 광역시 승격을 위한 기틀이 마련됐다.

1996년 12월 31일 울산광역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1997년 7월 15일부터 4구, 1군 체제의 울산광역시가 출범했다. 1998년 3월 1일 동구 염포동이 북구에 편입됐다. 2001년 3월 1일 울주군 온양면과 범서면이 읍으로 승격돼 울산광역시 4구 1군, 4읍 8면, 46개 동의 행정구역 체계를 갖추었다.

2002년 8월 30일 남구 무거동 일부가 울주군 범서읍으로, 울주군 범서읍 일부가 남구 무거동으로 각각 편입됐다. 2007년 2월 26일 무거동이 삼호동으로, 무거2동이 무거동으로, 아